

민주·혁신당 “12·3 내란 일으킨 윤석열, 표로 심판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맨 왼쪽부터)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민주당 양부남 광주시 총괄선대위원장,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등이 1일 오후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내란종식 총력 유세'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특별취재단=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문화전당서 대규모 첫 공동유세…총장으로 돌며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제 21대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두고 광주서 대규모 첫 공동유세를 했다.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조국혁신당 집행부가 광주에서 12·3 불법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해달라고 민주당과 함께 나선 것이다.

1일 민주당 광주시당과 조국 혁신당은 이날 오후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하늘 공원에서 '내란종식 총력 유세'에 나섰다.

이날 조국혁신당은 전 집행부가 총 출동했다. 조국혁신당 등 야 3당은 6·3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고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선대위를 꾸린 바 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서왕진 원내대표, 이해민·차규근·신장식·강경숙·정춘생(비례) 의원 뿐 아니라 황현진 사무총장, 장성훈 조직부총장, 윤재관 대변인까지 나섰다.

민주당에서는 양부남 민주당 광주총괄상임 선거대책위원장과 안도걸(광주 동남 을)의원이 참석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4월 조국 대표가 총선 선거운동 마지막날 광주를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기억을 되살려 이날 광주행을 택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12월 3일 광주시민 여러분을 걱정과 불안에 떨게 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는 여전히 맛집을 탐방하고 영화를 관람하고 거리를 활보한다”면서 “윤석열은 최근 김문수까지 지지선언을 하고 있다. 댁글조작 논란까지 받고 있는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는 투표를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번 대선은 내란대선으로 이를 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내란 정권은 법적단죄를

받지 않은채 김문수를 내세워 윤석열 여계인을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적이고 평화적 방식이면서 가장 강력한 수단인 투표로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면서 “시민들의 위대한 승리로 내란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양부남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간 대결이 아닌 국민과 윤석열의 대결”이라면서 “45년전 피로 민주주의를 지킨 광주가 6월 3일 투표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광주시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요구했다.

공동 유세 이후 조국혁신당 집행부들은 총장으로 우체국으로 자리를 옮겨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

이들은 “이 후보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면서 “광주가 이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대통령 당선 이후 내란 종식을 할 수 있게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특별취재단=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박지원(맨 오른쪽) 광주·전남 골목골목선대위원장이 정진욱 의원과 함께 31일 오후 광주시 남구 주월동 푸른길 토요시장에서 시민들에게 투표를 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특별취재단=최현배 기자 choi@

박지원 ‘이재명 지지 호소’ 1만 502km

광주·전남 누비며 민심 경청·투표 독려

민주 호남권 골목골목선대위원장

광주 5개 지자체·전남 22개 시·군

유세 50회·경청 투어 104회 진행

사전투표 전국 1위 투표율에 기여

“여러분 제가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투표하셔야 합니다.”

제 21대 대통령 선거기간 광주·전남 지역에서 날마다 울려 퍼진 더불어민주당 박지원(해남·완도·진도) 의원의 호소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공동대책위원장과 광주·전남 골목골목선거대책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박 의원은 대선을 3일 앞둔 지난달 31일 오후에도 광주시 남구 푸른길에서 유세에 나섰다.

박 의원은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주월동 푸른길 토요장터를 돌며 일일이 유권자들과 악수를 하며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운동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광주 5개 지자체, 22개 전남 시·군을 돌며 50회에 달하는 유세를 했고, 지역 민심을 듣고 현장을 누비는 경청 투어만 무려 104회를 했다.

박 의원은 이날까지 총 1만 502km를 이동하며 광주·전남 전 지역을 곳곳을 누볐다.

중앙당 차원의 선거운동이 필요하면 서울로 향했다가 일정이 끝나면 곧바로 광주·전남으로 발길

을 돌려 유세에 나섰다.

도심·시장 뿐 아니라 지역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박 의원은 달려가 지역민들의 손을 잡고 이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전남지역이 사전투표에서 전국 1위 투표율을 올리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박 의원은 “제가 많이 돌아 다녔다가 보다는 윤석열 정권의 내란에 대한 지역민들의 심판론이 작용한 것”이라고 자신을 낮췄다.

호남권에서 불법 비상계엄으로 진위쿠파타를 도모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분이 높다는 사실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이날도 박 의원은 현장에서 “사전 투표 하세요. 본 투표 때 투표 안한 사람 꼭 투표하라고 하십시오”, “투표를 해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고 말하면서 지역민들의 투표권 행사를 독려했다.

박 의원은 “사전 투표율이 높았다고 방심하기 보다는 높은 사전투표율을 마중물로 호남 지역에서 이 후보 득표율 90% 이상을 달성해 내란 정권 심판을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진욱(광주 동남 갑)의원도 박 의원과 일정을 같이 했다. 정 의원도 지역민들에게 이 후보에게 투표를 해야하는 이유 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유세활동을 펼쳤다.

정 의원 아내이자 이 후보 배우자실 실장인 임선숙 변호사도 김혜경 여사와 함께 조용한 행보로 이 후보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특별취재단=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재명 “호남·충청·영남 이차전지 배터리 삼각벨트 조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호남과 충청, 영남을 잇는 이차전지 배터리 삼각벨트 조성을 약속했다.

K배터리(이차전지)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핵심으로 둔화하고 있는 전기차 수요를 올리고 외국인 저가 배터리 공세를 막기 위해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K배터리 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 개인 페이스북에 “K배터리(이차전지)로 대한민국 경제를 재충전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확고한 경쟁우위

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전기차 수요 둔화와 외국인 저가 배터리 공세로 수익성이 악화되며, 산업 전반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 후보는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R&D를 강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국내 투자와 생산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 ‘호남권·충청권·영남권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를 조성’, ‘에너지고속도로와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으로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 ‘사용후 배터리 산업 전략적 육성’ 등을 제안했다.

전고체 배터리(Solid-State Battery)는 화재 위험을 줄이고 사용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차세대

핵심 기술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분야라는 점에서 전고체 배터리의 실증 연구부터 상용화까지, 국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호남·충청·영남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는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특화단지에 걸맞은 인프라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력과 용수 같은 입지 인프라부터, 인력과 공급망 같은 전략 인프라를 모두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삼각벨트’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호남권은 핵심 광물과 양극재 거점으로 삼고 충청권은 배터리 제조, 영남권은 핵심 소재와 미래수요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별취재단=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배와 같이 분묘개장을 하고요 인교차 또는 관례인은 공교 기간 내에 신고하지가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가주

1) 분묘 소재지: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62-8(산28-1) 나로 도 기 수 221

2. 개장사유: 토지 개발

3. 개장방법: - 유권분묘는 연교자와 협의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교기간 경과 후 관제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 후 안전조치 및 기간

1) 안전조치: 전남 여수시 조마면 봉두리 산190-1 (수묘의 30) 1) 안전기간: 개장 후 안전조치기간 10년

5. 공교기간: 최초 공교연도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처 및 공교인: - 정동해 010-7747-9258 - 정주아 010-3625-7548

7. 신고방법: 신고(연교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시에는 백장된 분묘자의 관제증명서(주소, 제적증명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 처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 구간 내에 공사 중세로이 발원되는 분묘 중 식물이 불가능 하거나 확인이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25년 6월 2일

공고인: 정동해 (010-7747-9258), 정주아(010-3625-7548)

판 결 공 시

•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3고단3069 사기

• 피고인: 이순미

위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5년 5월 23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용 신

못 받은 돈 회수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전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회사합병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지분은 주식회사 지분태양광발전소(을1), 주식회사 명호태양광 발전소(을2), 주식회사 신정태양광 발전소(을3)를 합병(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하여 그 권의무 등을 승계하고, 을1-을3은 해산(상법 제527조의2 규정에 의한 간이합병)하기로 각 회사가 2025년 5월 26일 주주 전원이 사면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합병)부터 1개월 이내에 관제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을1-을3 회사의 주주는 위 같은 기일 내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2일

“갑” 주식회사 지분
전남 광양시 향민로 49(중동)
대표이사 강 전 자

“을1” 주식회사 지분태양광발전소
전남 순천시 시민산길 12
사내이사 강 전 자

“을2” 주식회사 영보태양광발전소
전남 강진군 청량면 영북리 640-14
사내이사 이 연 순

“을3” 주식회사 석창태양광발전소
전남 함평군 순북면 석산로 166-96
사내이사 강 전 자

명당 전원주택 매매

전남 담양군 수북면 병풍산 자락
경치 최고, 공기청정지역, 평지

대지 704py 1층 주택 60py(최고급주택)
카페 및 부속건물 20py (덧발 100py.
트랙터, 비닐하우스 30py, 화창실 3개)
투자 및 숙박, 요양시설 용지 최고.

매매가 18억(용지 11억)
인수가 7억

010-3646-8700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